

학교폭력, 온라인 공간으로 진화

교육부,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전년비 0.4%p↑... 저연령화 사이버 괴롭힘, 신체폭행보다 0.8% 앞질러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초·중·고생 비율이 지난해 대비 0.4%포인트(1만3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중고생 가운데 초등학생 응답률의 증가폭(0.7%포인트)이 가장 커 학교폭력이 저연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비율로는 언어폭력(34.7%)이 여전히 가장 높았고, 사이버 괴롭힘(10.8%)은 신체폭행(10.0%)을 앞질렀다. 과거 오프라인에서 유행하던 학교폭력 양상이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온라인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초4~고3)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학교폭력 관련 경험·인식 등을 조사한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상 학생의 93.5%인 399만명

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1.3%(5만2천명)로 지난해 1차 때와 비교해 0.4%포인트(1만3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중고생 가운데 초등학생 응답률의 증가폭이 가장 커 학교폭력이 점차 저연령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2.8%, 중학교 0.7%, 고등학교 0.4%로, 지난해 1차 대비 각각 0.7%포인트, 0.2%포인트, 0.1%포인트 증가했다.

학생 1000명당 피해응답 건수는 언어폭력(8.7건), 집단따돌림(4.3건), 스토킹(3.0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유형별 비율도 언어폭력(34.7%)이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7.2%), 스토킹(11.8%)이 뒤따랐다.

특히 사이버 괴롭힘(10.8%)이 신체폭행(10.0%)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고등학교의

사이버 괴롭힘 비중(약 15%)이 초등 학교(9.2%)에 비해 약 6%포인트 높았다. 학교폭력 피해는 '교실 안' (29.4%), '복도' (14.1%), '운동장' (8.1%) 등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 안' (66.8%)에서 발생했다.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하는 시간은 '쉬는 시간' (32.8%), '점심 시간' (17.5%), '학교 이후' (15.7%), '수업 시간' (8.9%) 등의 순이었다.

피해학생이 응답한 가해자 유형은 '동학급 같은 반' (48.5%)이 가장 많았고, '동학급 동학년' (29.9%), '동학급 다른 학년' (7.1%), '타학급 학생' (3.5%) 등의 순이었다.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는 응답은 80.9%였다. 대상은 '가족' (44.5%), '선생님 및 신고함' (19.3%), '친구나 선배' (11.4%)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로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23.9%), '더 괴롭힘을 당할까 봐' (17.8%), '스스로 해결하려고' (16.9%) 등이 꼽혔다.

학교폭력 목격 후 '가족이나 선생님 등 주위에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68.2%이며 '모르는 척 했다'는

응답은 30.5%로 나타났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1차 조사결과를 반영해 31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효과적인 '학교 안'과 '복도' 등 학교폭력 예방 보안대책을 수립하겠다"면서 "조사체계를 개편·보완해 학교폭력 실태·원인 등을 심층적으로 밝혀내고 현직종심 학교폭력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학교폭력에 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교육청별로 공표하고,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학교알리미(schoolinfo.go.kr)에 9월 말에 실시될 예정인 2차 표본조사 결과와 함께 11월 말 공시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12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방식에 변화를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기 초 1회씩 매년 두 차례 전수조사로 진행했던 것을 1학기 전수조사와 2학기 표본조사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표본조사는 학교급별·학년별 전체 학생의 3%인 10만명 가량을 뽑아 실시한다. /뉴스1

“학교 석면철거 공사, 매뉴얼 철저히 지켜야”

김승환 교육감, 언론보도 언급 도내 실태 확인에 안전 지시

김승환 교육감이 학교 석면철거 공사와 관련해 긴장감을 갖고, 매뉴얼을 철저히 지킬 것을 주문했다. 최근 석면공사에 참여했던 현장 근로자의 부실시공 양심고백으로 석면공사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김 교육감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기사를 인용한 뒤 도내 실태에 대해 점검했다. 김 교육감은 "기사를 보면 정부와 업체가 한때다. 노동부 직원도 잘 된 부분만 사진 찍고 나왔다. 석면 철거할 때 물을 뿌려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해본 적 없다"라고 쓰고 있다면서 "우려되는 실태는 어떤지? 바닥에 물은 뿌리는지?" 등을 담당과장에게 확인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올 여름 전국적

으로 진행된 석면 철거 작업장의 20%가 우리 지역 학교였던 만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긴장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석면 이외에도 우레탄 트랙, 우레탄 농구코트, 인조잔디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업체들은 배불린 사례들이 있다"면서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시작하면 그것만 보지 말고, 그 나머지를 봐야 한다. 정치와 자선, 자신들의 먹거리에 집중하는 집단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국장이 직접 석면철거 작업현장을 둘러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오는 31일까지 교육정책 만족도조사 설문 문항 확정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김 교육감은 "문항을 만드는 데에 우리에게 유리한 결론을 유도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면서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도 적절한 검증들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 에스토니아 탈린대학교 국제협력 추진

4년간 북방지역 교류 성과 발트 3국 교류 확대 완성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북유럽 발트 3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 대학과 교류를 추진하며 뉴 실크로드 라인 국가들과의 교류확대에 힘을 쓰고 있다.

지난 25일 에스토니아를 방문한 전북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추진단장인 윤명숙 국제협력본부장은 탈린대학교와의 학술교류 협정을 추진하며 지난 3년 동안 발트 3국과의 교류 확대를 완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날 탈린대학교 프리트 레이스카(Piit Reiska) 부총장은 전북대 방문단을 만나 한국과의 교류 확대를 희망했다.

프리트 레이스카 부총장은 "한국의

높은 과학기술과 한국인의 적극성을 탈린대학에 접목시키기를 원한다"며 "특히 QS 등 대학 평가기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회과학분야와 35개 영어강좌 학과를 통해 국제 교류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국제협력으로 전북대는 리트비아와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이른바 발트 3국과의 국제협력을 완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리트비아국립대학과의 한국학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어 교육지원, 한국어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 교류 협력에 힘써왔으며, 2019년 3월부터 대학원 교환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교원양성에 힘쓰기로 합의했다.

또 리투아니아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한국학생의 파견 등 교류협력을 강화해왔다.



전북대학교가 북유럽 발트 3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 탈린대학교와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대 이남호 총장은 "이번 교류를 통해 지난 4년간 꾸준히 북방지역과의 교류를 강화해 오고 있는 전북대가 서구권과 동남아 등 한정적으로 해오던 국제교류의 지평을 넓히게 됐다"며 "중앙아시아 동유럽 등 지역

교류를 강화하고, 교수 및 학생교류와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 등을 세밀하게 추진해 국제화 거점 국립대로서 전북대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교육청, 추경예산안 도의회 제출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난 24일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3조3,157억 원보다 2,893억 원(8.7%) 늘어난 3조 6,050억 원 규모이다.

추경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은 ▲정규직 및 계약제교원 인건비 조정분 등 의무지출경비와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등 인건비 부족분 반영 ▲미세먼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실내 체육 시설 확충과 공기정화장치 렌탈 지원, 급식기구 및 급식시설 개선 등 안전사고 예방 교육환경 조성 ▲생안방시설 및 노후 화장실 개선, 석면 제거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 ▲목적 지정 예산과 본예산 편성 후 추가 발생된 재정수요 등을 반영하여 편성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은 ▲학교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실내 체육시설 조성 등 학생건강을 위한 260억원 ▲안전한 학교운동부 여건

개선, 과학실 안전장구 구축, 해상안 전체학교용장 설치 등 학생안전을 위한 74억원 ▲학교도서관 및 예술교과실, 과학실 현대화, 어울림활동실 신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168억 원을 편성했다.

또 ▲정규직 및 계약제교원 증감과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등에 따른 인건비 30억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학교 시설안전 및 노후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과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시설 651억원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교육채 상환 765억원을 편성했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지원 등 특별교부금 사업 190억원,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등 국고보조금 사업 10억원, 도시지역 무료급식 지원 등을 위한 자치단체 전입금 사업 145억원 등 목적지정 예산 361억원을 반영했다. 금번 제출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9월 3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35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8월 8일 실시된 2018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27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번 시험은 초졸은 75명이 응시해 65명이, 중졸은 212명이 응시해 129명이, 고졸은 723명이 응시해 461명이 합격했다.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합격률은 각각 초졸 86.67%, 중졸 60.85%, 고졸 63.76%를 보였다. 이번 시험의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시험에 응시한 74세 수험생이다.

합격증서는 8월 27일부터 9월 21일 까지 도교육청 1층 고객지원실에 신분증만 가져가면 수령할 수 있으며, 원사집수 시 우편수령을 신청한 사람은 집에서 우편으로 합격증서를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2018년도 제2회 검

정고시 성적조회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9월 21일까지 가능하다.

또한 이번에 검정고시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주민자치센터 주민가 등을 통해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김재훈 기자

원광대 병원 권역외상센터 심포지엄 31일 개최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무영) 권역 외상 센터(센터장 문성근)가 대한외상내과학회(회장 김창원)와 공동으로 권역외상센터 활성화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오는 31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외래동 4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날 심포지엄은 외상 환자 진료 담당 관계자들과 일선 전문가를 초빙해 외상환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익산=우병희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